

III. 병자성사(病者聖事)¹⁾

신성근 신부

사람에게 병고와 재앙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고통과 더불어 체력이 약화하고 정신은 혼미해진다. 더구나 중병에 걸리면 심리적인 위축과 고독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 이런 환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병들고 약해진 그리스도인을 도와서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고, 병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사가 바로 병자성사이다.

교회가 병자성사를 베푸는 일차적인 목적은, 병자들에 대한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수난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 드리는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낮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께 간청한다. 나아가 교회는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해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이바지하도록 권고한다.²⁾

1. 구원 경륜에서 본 병자성사의 근거들

1) 인생과 질병

인생을 가장 괴롭혀 온 문제 중에는 늘 질병과 고통이 들어 있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 유한성을 체험한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죽음을 예감하게 한다. 질병은 우리를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에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다. 반면에 질병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게 한다.

2) 하느님 앞의 병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병으로 고통당한다. 하느님께 자신의 병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고,³⁾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치유를 애원한다.⁴⁾ 질병은 회개의 길이 되고,⁵⁾ 하느님의 용서는 치유의 시발이 된다.⁶⁾ 이스라엘은, 병이 신비하게 죄와 악과 관련되어 있으며, 율법에 따라 하느님께 충실하면 생명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체험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낮게 하는 주님이다”(탈

1) 이 글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9항-1525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 교회 헌장, 11항 참조.

3) 시편 38(37) 참조.

4) 시편 6,3 :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5) 시편 38(37), 6 : 저의 미련함 때문에 제 상처는 냄새 피우며 썩어 갑니다.

6) 시편 32(31), 5 :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셀라

출 15,26). 예언자는 고통이 타인의 죄를 속량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⁷⁾ 마침내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시온을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 때가 오리라고 예고한다.⁸⁾

3) 의사이신 그리스도와 병자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동정하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고⁹⁾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명백한 표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치유의 능력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고쳐주려고 오셨다. 그분께서는 병자들에게 필요한 의사이시다.¹⁰⁾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기까지 하셨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마태 25,36). 병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각별한 관심을 오랜 세월 동안 불러일으켜 왔다.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근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병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며, 진흙을 바르고 물로 씻는 표징들을 사용하여 병을 고치신다. 병자들은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준”(루카 6,19) 것을 보고 모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처럼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신다.’

이렇게 많은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이 당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불행을 당신의 불행으로 여기신다.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마태 8,17)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징표들이었고, 더 근본적인 치유, 곧 당신 파스카를 통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세상의 죄”(요한 1,29)를 치워 없애셨다. 병은 단지 세상의 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속량을 위한 그분의 수난에 결합할 수 있다.

4) 그리스도의 명령 : “앓는 이들은 고쳐주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권고하신다. 제

7) 이사 53,11 :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8) 이사 33,24 : 그곳에 사는 이는 아무도 “나는 병들었다.” 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으리라.

9) 루카 7,16 :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10) 마르 2,17 :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병과 병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의 가난하고 봉사하는 삶에 함께하도록 하며, 연민과 치유의 직무에 참여시키신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마르 6.12-13).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이 파견을 새롭게 하신다.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올 것이다.”(마르 16.17-18)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징들을 통하여 이 파견을 확인해 주신다. 그 표징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¹¹⁾ 것을 특별하게 나타낸다.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지닌 힘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라는 것을 배워야 했고, 또 고통을 견뎌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다.”(콜로 1.24)는 의미가 있음을 배워야 했다.

“앓는 이들은 고쳐주어라.”(마태 10.8)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아울러 그들을 위해 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교회는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현존을 믿는다. 이 현존은 특별히 성사들 안에서 작용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인 성체성사 안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효과를 낸다. 바오로 사도는 성체와 육체적 건강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¹²⁾

사도 시대의 교회에는 병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

5) 병자성사 제정

교회는 일곱 성사 중에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성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 병자성사가 그것이다. 병자의 거룩한 도유는 진실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성사로 세우신 것이라고 마르코 복음서에 암시되고 있으며,¹³⁾ 주님의 사도이며 형제인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권고하고 선포

11) 사도 4.12 :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12) 1코린 11.30 :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13) 마르 6.13 :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한 것이다.

병자성사는 위독한 병자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정식으로 축성한 올리브기름이나 때에 따라 다른 식물성 기름을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바르며,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한 번만 외운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 주소서.”¹⁴⁾

2. 병자성사를 받을 자와 집전자

1) 병자들

병자성사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¹⁵⁾

병자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급격히 쇠약해지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2) 집전자 :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거행한다. 교우들에게 이 성사의 선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사목자들의 의무이다. 신자들은 이 성사를 받기 위해 사제를 청하도록 병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병자들은 그들의 목자와 온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성사를 받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교회 공동체 전체는 병자들을 특별히 기도와 형제적인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

3. 병자성사의 거행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병자성사도 가정에서 거행하든 병원이나 성당에서 거행하든, 한 사람의 병자를 위해 거행하든 여러 병자를 위해 거행하든, 전례적이고 공동체적이다.¹⁶⁾ 이 성사는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상황이 허락하면, 고해성사를 먼저 베풀고, 병자성사 뒤에 성체성사를 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성사로서 성체는 언제나 지상 순례길의 마지막 성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노자’(路資) 성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사는 불가분의 전체를 이룬다. 참회 기도에 이은 말씀 전례로 성사 거행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은 병자와 공동체의 신앙을 일깨워 주

14) 교회법, 제847조 1항 참조.

15) 교회법 제1004조 1항, 제1005조, 제1007조 참조.

16) 전례 헌장, 27항.

님께 성령의 권능을 청하게 한다.

성사의 거행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교회의 원로들”¹⁷⁾ 곧 사제들은 침묵 중에 병자에게 손을 얹는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¹⁸⁾ 이것이 이 성사의 고유한 성령 청원 기도이다. 이때 가능하면 주교가 축성한 기름을 발라 준다. 이러한 전례적 행위들은 이 성사가 병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는지를 가리킨다.

4. 병자성사의 은총

1) 성령의 특별한 선물

병자성사의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의 유혹, 곧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도움은 병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체도 치유한다. 그뿐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야고 5,15).

2) 그리스도의 수난에 결합함

이 성사의 은총으로 병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난에 더욱 가까이 결합하는 힘과 은혜를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병자는 구세주의 속량하시는 수난을 닮음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축성되는 것이다. 원죄의 결과인 고통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곧 고통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3) 교회의 은총

이 성사를 받은 “병자들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하여,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¹⁹⁾한다. 교회는 이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병자들의 선익을 위해 전구 한다. 또 병자도 나름대로 이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교회의 성화와 모든 이의 선익에 이바지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이다.

4) 마지막 길의 준비

병자성사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특히 “생명이 떠나려는 순간에 처한 이들”²⁰⁾에게 베풀어져야

17) 야고 5,14 :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18) 야고 5,15 :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9) 교회 헌장, 11항.

20)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병자성사 교리, 제3장.

한다. 그러므로 이 성사를 “떠나는 이들의 성사”²¹⁾라고도 불렀다. 병자성사는 세례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화하는 일치를 완성한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평생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유들을 완결 짓는다. 세례 때의 도유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새겨 주었고, 견진의 도유는 이 생명의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해 주었다. 병자성사의 마지막 도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마지막 싸움에 대비하여 우리 지상 생활의 마지막에 튼튼한 방패를 마련해 준다.²²⁾

5.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성사인 노자 성체

교회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유 외에도 노자(路資)로 성체를 준다.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54)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며 부활의 힘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인 성체성사가 여기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성사가 된다.²³⁾

따라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는 단일성을 가지듯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노자로 모시는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 ‘천상 고향에 갈 준비를 하는 성사’ 또는 나그넷길을 마무리하기 위한 성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6. 병자성사를 청하는 가족이 알아야 할 일

병자성사를 청하는 가족에게는 먼저 신앙과 열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병자가 자택에 있는 경우라면, 우선 사제를 청하기에 앞서 환자의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오기 때문이며, 성사를 주는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이다.²⁴⁾ 그리고 사제에게 (1) 병자의 상태(의식 상태나 영성체 가능 여부), (2) 병의 종류, (3) 의사의 진단 결과, (4) 교회 안에서의 장애나 냉담 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병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있을 경우는 담당자들의 협조를 정중히 청한다.

이어 사제가 도착하면, 가족들은 병자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족들과 친지들은 방관자가 되지 않고, 이 성사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한다. 그리하여 병자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 그럼으로써 병자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고, 공

21)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병자성사 교리, 제3장.

22)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병자성사 교리, 서문.

23) 요한 13,1 :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24) 실질적인 준비물 : 상이나 책상에 흰 보(종이)를 깔아 놓고, 십자가와 초, 성수와 성체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냉수 그리고 흰 솜이나 휴지 등을 준비해 준다.

동체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

7. 병자가 가져야 할 태도

병자는 자신이 중병에 있음을 자각했을 때는 서슴지 말고 사제를 청할 것이다. 병자성사는 병자만이 받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통하여 약해진 심신을 굳건히 잡아주며,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는 성사이다. 혹 만일 임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도 병자성사는 큰 위로가 된다. 이로써 병자는 이 성사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은총의 힘을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신앙에 참여한다.

병자성사를 받고자 하는 병자는 자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한 신뢰심으로 이 성사에 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병자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다. 교회는 항상 병자와 함께, 또 병자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1베드 5,10). “가난과 허약과 병과 갖가지 고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각별히 일치되어 있다는 것”²⁵⁾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병고는 오히려 영광의 일면을 담당할 것이 된다.

25) 교회 헌장, 41항.